

# 음주운전자 한밤 시속 160km 광란도주... 시민은 쫓고 경찰은 구경만

### 광주 만취 20대 택시 들이받고 경찰 매달고 질주 중앙선 넘고 인도 돌진... 택시 5대가 추격 붙잡아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한밤 중 광주 도심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택시기사들에게 붙잡혔다.

3차례의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를 뒤쫓는 택시기사와 달리, 경찰은 '2차 사고 방지'를 내세워 추격을 포기해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격전은 지난 14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신증권 앞길에서 나모(24)씨가 자신의 스포카 차량으로 정차해있던 김모(25)씨의 K5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면서 시작했다.

나씨는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고 김씨는 뒤쫓으며 회사 무전기로 같은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나씨의 도주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또 추격 중 밤 10시 9분께 경찰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신고도 했다. 나씨는 광천 1교 앞길에서 김씨 동료 가 모는 택시 3대에 가로 막혔지만 접촉 사고를 내며 빠져나간 뒤 광천동 방면으로 달아났다.

나씨는 그러나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멈춰섰고 이 때 김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 단속에 걸렸다.

나씨의 질주는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10시 10분께 김모(48)경사가 순찰차에서 내려 나씨의 차량기를 빼내려는 순간, 나씨는 김 경사를 차량에 매단 채 30여m 가량을 그대로 질주했다. 이 때 김 경사는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지만 나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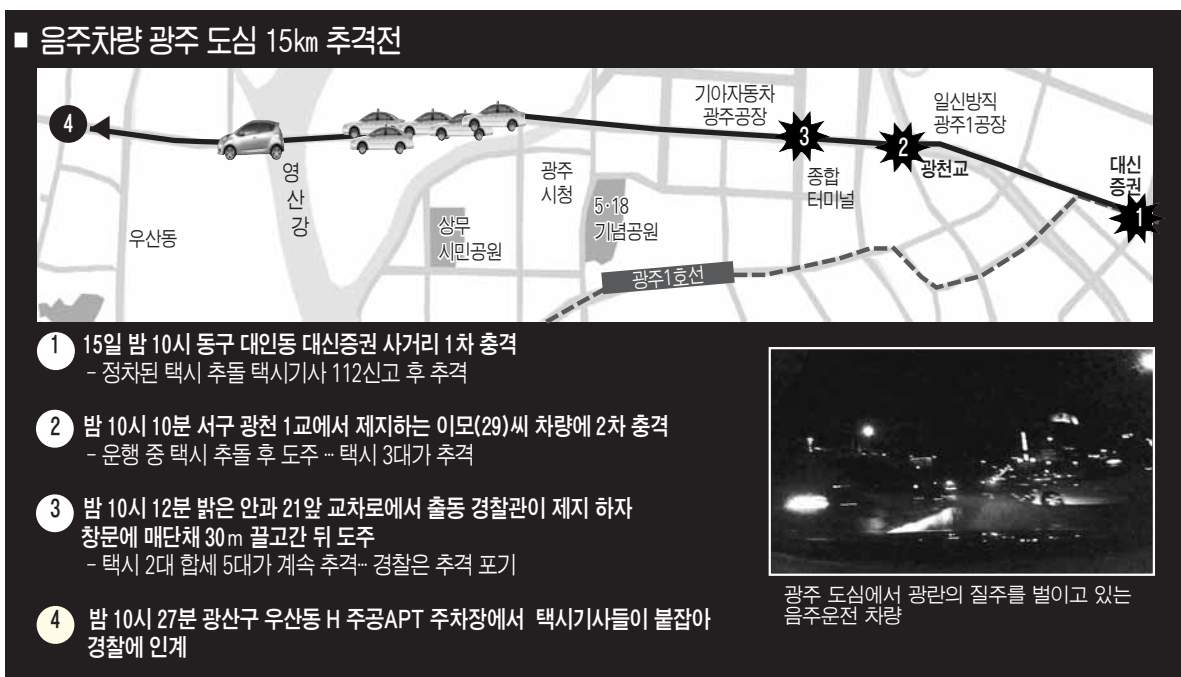
그대로 내달렸다. 나씨는 김씨 등 택시기사들이 진행 방향 앞을 가로 막으려하자 중앙선을 넘는가 하면, 인도로 들어가 달아났다. 무전로에 들어선 뒤에는 150km를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2차 사고 발생을 우려해 추격을 포기했지만 택시 기사들은 위험을 무릅쓰며 나씨를 쫓았고 10km를 더 이동해 광산구 우산동 H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택시기사들은 다시 경찰에 신고, 나씨를 넘겼다. 경찰이 위험하다며 추격을 포기한 음주 운전자를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30여분 가량 쫓아 붙잡아 넘겨준 셈이다.

경찰은 "차량 조회로 신원을 확인했고 112로 각 지구대 등에 상황을 전파한 만큼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차량 추격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가 이미 3차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적극적인 검거에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택시기사 이모(29)씨는 "광천동에서 나씨의 차량을 막으려 하자 나씨가 중앙선을 넘거나, 심지어 인도를 통해 도망가기도 했다"며 "무전로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를 내며 차신을 무시한 채 질주하는데, 경찰이 쫓아오질 않아 계속 나씨를 추격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대낮 음주운전 단속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올림픽 중심사 입구에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광주지역 4곳에서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한 데 이어, 이 날도 중심사 입구 등 5곳에서 면허취소 6건, 면허정지 3건 등 모두 9건을 적발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얼굴에 소변... 막가는 學暴

### 전남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섰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의 얼굴에 소변을 묻게 하는 등 가학적인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A(18)군 등 3학년 학생 3명이 2학년 학생 B(17)군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를 빼앗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 등 가해학생 중 일부는 지난 4월께 기숙사 방에서 누워있는 B군의 얼굴 쪽에 소변을 바 얼굴에 묻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B군은 최근 같은 피해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지난 4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군 등 가해학생 3명에 대해 출석정지 명령과 함께 전학을 가도록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군이 얼굴에 소변을 맞은

사실은 B군의 부모는 물론 전남도교육청에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군의 부모는 간단한 폭행사실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만 전해 듣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가 뒤늦게 '소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전남도교육청도 B군의 '소변 피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가 내용을 전해 듣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여수에서 '괴물고기' 인터넷서 '와글와글'

수산과학원 "확인 어려워"

여수에서 잡혔다는 이상한 모양의 물고기(사진 위)에 인터넷에서 추적이 난무하고 있다. 15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따르면 전남 아고라 블로그에 아이디 ms5\*\*\*씨가 '이 물고기 정체가 뭐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아는 지인이 여수 방파제에서 잡았는데 신기해서 올려봅니다"라며 "진짜 돌연변이? 이 고기 이름 좀 알려주세요"라며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진에는 몸을 닮은 모습에 부챗살 모양의 꼬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찍혀있다. 누리꾼들이 사진에 '실산갈치', '홍투라치', '귀태어' 등 다양한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지난 2009년 제주에서 잡

한 미기록종 '실산갈치'(사진 아래)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사진상으로는 처음 보는 물고기"라며 "실산갈치라는 말도 있지만 공식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광주 모 신문사 대표 징역 1년

장흥군청 공무원노조위원장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사건 처리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주 지역 모 신문사 대표이사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가정주부 A씨가 고소한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2차 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장흥군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장흥군청 김모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군청의 한 간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무보협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여자 속옷 도둑 잡고보니...

○~빌라 방범 창 사이로 막대기를 넣어 여성 속옷을 훔친 20대 지적장애인이 경찰서 행.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6·지적장애 2급)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A 빌라 1층에 사는 이모(여·43)씨의 집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시가 4만 원 상당)을 훔친 뒤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 ○~경찰은 자신의 속옷이 없어졌다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A빌라 계단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경찰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한 달

신고접수 89건  
면허정지 15명  
면허취소 25명

4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순천에서 19명(면허정지 5건, 면허취소 14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순천경찰은 지난달 25일 밤 10시 10분께 순천시 조례동 왕조 1동 사무소 앞길에서 승용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출동, 혈중알콜농도 0.198%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김모(50)씨를 적발했다. 이어 여수 9명(정지 5·취소 4), 목포 7명(정지 3·취소 4), 나주 3명(정지 2·취소 1), 광양 2명(취소 2) 등의 순이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5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④ 등 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